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김혜자 수녀(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먼

저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리며 호스피스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음을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IMF. 지도하에 국가경제가 운용되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정과 사회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지탱하기에 급급한 현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호스피스 회원 여러분께서 주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투신함으로써 이 사회와 가정을 희망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역군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 10) 하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몸소 사랑과 봉사에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시기에 봉사하는 회원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난제가 있음을 인식할 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하여 숙원의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

첫째, 호스피스 행위가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치료약을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머거리, 병어리, 눈먼이들, 중풍환자까지도 가리지 않으시고 측은히 생각하시고 끝까지 돌보셨듯이 우리 호스피스 회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법적인 활동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회원 배가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400명의 회원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셋째, 범국민적 차원에서 모두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느 누구도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교회적으로 볼 때에 각 교구별로 호스피스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각 교구장님들의 인준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몇몇 수녀님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가정간호도 호스피스 활동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는 내적 신앙행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있으면 대희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은총의 대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역시 호스피스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통일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호스피스 활동도 모색해 보는 미래 지향적인 회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